지갑속 재단가위

(행20:1~12)

7.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8.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9.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 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10.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11.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12.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지갑 속 재단가위>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지갑속 재단가위'

여러분, 지갑에 뭐 넣고 다니십니까?
주민등록증 그리고 운전면허증, 거기에다 필요한 분들은 명함 같은 것들, 뭐 학생증이라든지,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 그리고 각종 크레딧 카드가 지갑 속에 들어 있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현찰, 현금을 또 조금씩 지갑에 넣어서 갖고 다닙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집 밖을 나갈 때 지갑을 갖고 나가지 않으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걷거나 뛰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집 밖에 나가서 움직이며 살려면, 꼭 필요한 필수품들이 들어 있는 지갑에, 오늘부터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넣어 갖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재단가위입니다, 재단가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재단가위에요.

이 재단(裁斷)이라는 게 한자로 마름질한다 할 때 그 재(裁)자를 쓰고, 단자는 끊을 단(斷)자입니다.
즉, 옷감을 펼쳐놓고 자를 가지고 치수를 잰 뒤, 본을 갖다 대고 모양을 떠가지고 가위질을 합니다, 재단 가위로 옷감을 잘라내서 옷을 만듭니다.
이게 재단 가위이고 이게 바로 재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단이라는 말 속에, 옷감을 수치를 재고 자른다고 하는 마름질의 뜻이 들어있는 이 재단이라는 뜻 속에, 동시에 어떤 뜻이 들어있냐 하면, 판단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판단.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의 호불호,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 상황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이게 아름다운 것이냐 추한 것이냐, 가짜냐 진짜냐, 이런 판가름을 한다는 뜻이 또한 재단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상황이 주어지는 건 옷감이 펼쳐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상황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아름다운 상황이냐 추한 상황이냐, 모양을 그려내는 것이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재단이라는 말 속에, 옷감의 치수를 재서 자른다는 말과 상황을 판단한다는 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는,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게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요한세례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부터는 이 땅 위에서 기쁨을 찾지 않겠다, 이 땅 위에서 내 마음의 배를 부르게 할 만한 만족거리를 찾지 않겠다고…
그렇다고 만족을 안 한다는 것과 기쁨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만족거리를 찾고 기쁨을 찾겠다고 결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살 때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돌이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살던 삶에서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상황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돈을 번다는 기준을 가지고 바라볼 때, 돈이 안 벌리면 나쁜 상

황입니다, 내 돈을 사기 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얼마든지 주어지는 상황과 주어지는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를 재단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이런 모양이다. 좋은 모양이다 나쁜 모양이다, 추한 모양이다 아름다운 모양이다, 도움이 되는 것이다 안 되는 것이다' 재단을 해 낼 수가 있는데, 내가 이제 돈을 벌어서 만족하겠다는 생각을 안 갖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벌고 못 벌고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상황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지갑을 열고 들이대야 될 것이 하나님의 가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단가위.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시는가를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단가위를 넣고 다니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측하지 못했던 수없이 많은 그 상황 상황마다 하나님의 재단가위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갑 속에 넣고 다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보다 더 빈번히, 지갑 속에 들어 있는 크레딧 카드를 꺼내는 것보다 더 빈번히, 지갑 속에 들어 있는 현금을 꺼내서 지불하는 것보다 더 빈번하게 지갑 속에 하나님의 재단가위를 넣고 다니다가 꺼내서, 하나님이 어떤 모양을 그리시려 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판단을 듣는 일이 더 빈번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요한 세례의 의미를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땅 위에 있는 것으로서 만족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하고, 하늘로부터 기쁨을 얻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판단의 기준이 없어진 겁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때문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재단가위를 갖고 다니다가, 그 하나님의 재단가위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모양을 잘라 가시는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르시는가, 추한 모습으로 자르시는가, '아니다'라고 자르시는가, '기다'라고 자르시는가?
이런 하나님의 판단을 듣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지금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한 귀향길에, 그리스반도 마케도니아라고 지금 계속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발칸 반도의 남부.

그리스 반도에서의 전도여행을 끝으로, 육로로 그리스 반도 북쪽으로 올라와서 에게 해를 건너서, 터키의 서부 에베소가 있는 그 지역, 에베소가 터키의 제일 서쪽에 있잖아요? 그 에베소 위쪽에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은, 2차 여행 때 말씀할 기회를 얻었지마는 디도와의 만남이 어그러지면서 심령이 닫혀져 가지고, 말씀을 못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로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그 말씀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드로아 사람들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마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생기고,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생적으로 생긴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직접적인 말씀전파가 없이.
그러니까 참 사도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드로아 교회에 대해서 애틋했겠어요?
그런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 드로아 교회에서의 드로아 교인들과의 만남은, 바울 생애의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리고는 이 로마를 기준으로, 동쪽지역 그러니까 발칸반도의 고린도라든지,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 베뢰아 그리고 이 터키의 서부 에베소 교회라든지, 이쪽 지역은 이제 다시 바울이 발을 들여놓지를 못합니다.
로마의 서쪽으로만 선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드로아 교회가 마지막 만남이 되는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애틋했겠어요?
밤이 깊은 줄 모르고 설교를 합니다, 내일이면 떠나야 되니까.
그런데, 이 길어지는 설교를 듣는 가운데, 바울 3차 전도여행 전체를 통틀어, 선교여행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사람이 추락해서 죽어버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서.
그것도 말씀이 너무 길어지면서, 본의 아니게 원인 제공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졸려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드로아에서 어떤 사람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사람이 많다 보니 그 다락방 3층 창문턱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그 졸음이 깊어져 가지고 그만 떨어졌는데, 그것도 집 안쪽으로 떨어졌으면 마룻바닥으로 나동그라졌을 텐데, 불행히도 집 바깥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지금 드로아 교인들은 바울을 잘 모릅니다, 처음 만난 거예요.
말씀으로만,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
그 말씀을 간접적으로 듣,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말로만 듣던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고 말씀을 듣게 되는데, 내일이면 떠난다고 합니다.
모~든 기대감이 충만해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밤이 깊게 깊게 진행되는 가운데 오랫동안 설교를 해도 자리를 떠날 줄 모르고 듣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말씀을 그 말로만 듣던 사도를 직접 만나서 듣는데, 청년 하나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사람들은 주로,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졌다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유두고처럼 졸면 안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겁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이름은 헬라사회에서 하층민이나 노예계층의 사람들이 주로 쓰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하루 종~일 노역에 시달리다가, 그래도 말씀을 듣겠다고 찾아왔어요, 이 청년이.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졸다가 죽었습니다.

자! 유두고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바울에게 초점을 맞춰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는 예외 없이 성령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시는 십자가복음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서,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알고 계시는 가운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안쪽으로 떨어져도 될 것을, 바깥쪽으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바울이 유두고를 살려낸 게 아니에요.
무조건 죽은 사람을 살리겠다고 달려드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로서는 당황스러운 겁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현장에서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울에게 대적하던 자가 그렇게 죽었다 그러면 모를까, 말씀을 들으려 온 이 노예생활을 하는 청년이, 하루 종일 노역에 시달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려 왔다가, 피곤을 못 이겨서 졸다가 떨어졌는데, 안쪽으로 떨어지지 않고 바깥쪽으로 떨어졌어요.

성령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이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일 먼저 뛰어 내려간 것이 아마, 이 글을 적은 누가였을 거예요. 누가가 누구입니까? 의사에요 의사.
사람들이 뛰어 내려가서 유두고를 일으켜 세웠는데, 풀썩 떨어집니다, 죽은 거예요.
누가가 재차 달려와서 확인을 합니다.
어디부터 확인했겠습니까? 의사이니까, 심장과 맥박부터 확인했을 것이에요. 죽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에 죽었다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왔습니다.
그 위에 포개져서 그 시체를 껴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이 바울의 말을 빌어볼 때, 바울은 지금 죽은 유두고를 살린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 한 것입니까?

유두고가 창 바깥으로 떨어져서 죽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유두고가 추락사 하게 된 상황자체에 대해서,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하나님의 재단가위를 꺼내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유두고가 추락해서 죽은 이 상황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라고 하나님께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의사가 판단할 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죽은 게 맞아요.
죽은 게 맞는데, 하나님께 들으니까 이 유두고라는 청년의 이 땅 위에서의 목숨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듣는 겁니다.
의사는 죽었다고 판단하지만 그 판단이 무효에요,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속에서 유두고의 생명을 아직도 붙들고 계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아직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죽이려는 마음이 없는데 죽은 자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아직은 유두고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죽은 자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재단가위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맨 끝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위로를 받았더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파라칼레오라는 말의 수동태입니다.
파라칼레오라는 얘기는 위로한다는 뜻인데, 이 위로가 어떤 위로냐 하면, 팔복에서도 나왔던 얘기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파라'라는 말은 '곁으로'라는 뜻이고 '칼레오'라는 말은 영어의 call,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위로라는 뜻이 뭐냐 하면 '옆으로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청년이 살아남을 통하여, 이 드로아 교회의 교인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드로아 교인들이 이제 바울을 못 만납니다, 마지막 만남입니다.
이 마지막 만남에서 하나님이, 유두고 청년이 살아남을 통해서 드로아 교인들의 마음 전체를 하나님 곁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옆으로 바짝 끌어당기신 거예요.
즉, 말씀으로만 듣던 그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은 그 하나님이, 내 옆에서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이 느껴지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바울과 마지막 만남에서.
그리로 이끄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유두고의 시체에 대해서 행한 것을, 비교해 보면 알아요.
욥바에서 베드로가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를 살려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락방에 시체가 있었는데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시체를 향하여 '도르가야 일어나라' 하고 외치게 됩니다.
이건 살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 다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 몸을 펴서 그 위에 겹쳐 엎드린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합니다.
'이 아이의 혼이 다시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살려냅니다.
살리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여인의 아들을 엘리사가 살릴 때도 비슷합니다.
그 위에 몸이 포개져 가지고,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손을 맞출 때, 그 죽은 시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살아납니다.
뭐냐 하면, 다 살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살려낸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몸을 껴안아요, 죽은 시체를 껴안고 말합니다.
‘떠들지 마라, 그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유두고가 죽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재단가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마음으로 듣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왜 지금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서, 졸은 것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졸다가 안쪽으로 떨어지면 되는데, 그걸 보고 계시면서 성령님께서 왜 바깥쪽으로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시고 이렇게 죽게 하셨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선교여행 전체를 재단하고 계시면서, 지금 유두고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현상을 만들어 내신 겁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 계획과 섭리 안에서 유두고는 죽지 않았다’
의사인 누가는 죽었다고 판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이 유두고를 다시 살려냄을 통해서, 네가 이제 마지막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이 드로아 교인들을, 내가 내 곁으로 바싹 끌어당기기 위해’ 유두고의 죽음을 섭리적으로 용인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갑 속에 하나님의 재단가위를 넣고 가세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재단가위를 가지고, 드디어 그림 그리고 잘라 가면서 이루어 가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돈이 안 벌리더라도, 원수가 나를 대적하더라도, 사기꾼이 나를 잡아먹을 듯 달려들더라도, 가족 간의 문제가 생길 때라도, 그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눈으로 귀로 듣는 대로 반응하면서 판단하며 행동하지 말고, 내 지갑에서 내 주민등록증 꺼내듯이, 운전면허증 꺼내듯이, 크레딧 카드 꺼내듯이, 하나님의 재단가위를 꺼내고 의식하고, 재단가위의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왜 내게 주셨을까? 어떤 그림을 전체적으로 그려 나가시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지금 이러한 상황을 내게 주신 것일까?
하나님의 재단가위를 지갑 속에 넣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불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단 한 순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재단가위를 넣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판단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불통이 있을 수 없고, 막힘이 있을 수 없고, 실패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돈이 안 벌릴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나에게 모든 사람이 다 우호적으로 대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 지갑에서 크레딧 카드 꺼내듯이 주님의 재단가위를 기억해내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실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주실 수도 있고, 또 그런 게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무조건 믿으시면 됩니다.
'합동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 땅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을 것을 중단하고 포기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지갑 속에 하나님의 재단가위를 넣고 다니며, 하나님의 재단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듣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재단가위를 꺼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형통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